

2018년 11월 1일, 제주시 이호2동 오도마을복지회관, 이효순 조사.

고영수(남, 1940년생, 제주시 이호2동)

- 제주시 이호2동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고전적은 명도암 선생의 묘터를 잘못 써서 서목사에게 혼이 났는데, 서목사는 자신의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다가 고전적으로부터 진급할 운이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날 대장으로 승진하여 상경하였다. 서목사는 60세의 고전적을 성균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전적 벼슬을 주었고 제주에 내려온 고전적은 풍수지리학을 전파하였다.

[제보자] 전적 벼슬이라는 건 서목사가 와가지고 명도암 선생 자리를 참배할 때 고전적이 목사한테 욕을 먹었거든. 아무리 스승한테 서자 취급 당해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목사한테 꾸중을 많이 받아서 있는데, 그놈의 목사가 꿈에 밤마다 꿈꿔가지고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을 소집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고전적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이야기하니깐

“이제 상경해가지고 진급할 운입니다.”

헛단 말이야.

다음 날은 중앙에서 대장으로 승진해서 서울 올라갔거든. 올라가니까 확 그 꿈을 잘 해석해 준 고전적한테 고마움을 내가 보답을 해야겠다. 그 욕십 세 난 하르방을 불러가지고 성균관에서 욕 개월 교육시켜네 전적 벼슬을 제주 왔던 목사가 맨들어 짓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욕십 넘은 하르방이 전적이란 건 말단 공무원 구 급, 팔 급 공무원이거든 성균관에서 심부름하는 직책인데 한 이 년 근무허당 내려와서 제주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양반은 지리를 잘 알고 해가지고 칠십삼 세에 돌아가셨어.

예순하나에 성균관에 가가지고 전적 벼슬 받아그네 삼 년 근무허영 제주 내려왕 나머지 한 십 년은 제주도에서 생활허문서 자기 그 풍수지리학을 전파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조사자] 원래 이름이 뭐우파?

[제보자] 전적은 하나의 벼슬이주기. 잊어불엇저 그거. 고흥진.

- 핵심어: 서목사, 꿈, 해몽, 고전적, 진급, 풍수지리학, 성균관, 고흥진